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1일 수요일 음 3월 10일 (2물)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0%
20%	성 산	0%
20%	고 산	0%
20%	서귀포	0%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3℃, 낮 최고기온은 21~22℃로 전망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기온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해뜸 05:57 해짐 19:09		달뜸 12:37 달짐 02:20
물때	만조 06:24 18:24		간조 13:14 :

식중독지수 주의 / 감기가능지수 보통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5/24℃
모레	흐림	16/22℃

월드뉴스

보이스피싱에 365억원 날린 홍콩 할머니

6개월간 11차례 걸쳐 송금
홍콩 최대 규모 피싱 사건

보이스 피싱 CG.

홍콩의 90세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무려 365억 원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90세 홍콩 할머니는 중국 본토 관리를 사칭한 자들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총 2억 5490만 홍콩 달러(약 365억 7000만 원)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개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할머니의 신분이 중국 본토에서 심각한 범죄에 도용됐다면서, 관련 조사를 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19세 대학생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다른 일당들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게 연결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대학생을 체포해 900만 홍콩달러(약 13억 원)가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했으나, 나머지 돈은 다른 일당들이 갖고 튀었다.

할머니는 홍콩 최고 부촌인 빅토리아 피크 주변에 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홍콩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65세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6890만 홍콩 달러(약 99억 원)를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꾸준한 치료 예방 필요한 허리 디스크와 전방 전위증

이 방 훈
재활의학 전문의·의학박사

여러 가지 허리 질환들이 있지만, 척추 뼈가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손상이 돼서 생기는 '척추 전방 전위증'과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터져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뿌리를 눌러 증상이 나오는 추간판 탈출증 소위 '디스크'라 불리는 질환은 꼭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잘 해야 하고, 완치 후에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와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허리질환은 치료와 예방을 잘 못하는 경우 하지마비와 대소변 장애 등 합병증이 오기 쉽고, 불행하게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질환 모두 허리가 아프고 부자연스럽다. 디스크는 갑자기 아파오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전방전위증은 증상이 서서히 오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엉덩이 허벅지 장딴지 발목까지 통증이 내려오고 저린감과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아주 심한 경우 다리의 근력저하나 대소변 장애 같은 신경 손상 소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수술도 생각해야 한다. 요추 전방전위증시 디스크와 다른 특이한 증상은 허리를 뒤로 젖히면 허리통증이 오는데 이때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쉬면 증상이 사라진다.

요추 전방 전위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노인성 변화와 척추분리증이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척추가 장기간 불안정해 생길 수도 있다. 척추분리증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척추 뼈 내의 연결 부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이다. 결손 부위에서 뼈가 어긋나면서 위쪽 척추가 아래 척추에 비해 앞으로 빠져 척추 전방전위 상태가 된다. 성인이 된 후에 처음 발견한 경우, 척추분리증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 전방 전위증으로 발전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보통 청소년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척추 뼈가 빠진 정도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나뉜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척추 뼈 전체가 앞으로 빠지기도 한다. 전위가 심해지면 허리가 짧아지고 허리 뒷부분이 푹 들어가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다.

진단은 위에 기술한 내용들과 단순방사선검사, 특히 척추자기공명영상(MRI)이 중요하다.

치료는 두 질환 모두 보존요법을 쓰는데 약물치료로는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사용한다. 물리치료는 핫 팩, 초음파, 간섭파, 허리견인 그리고 운동치료 등이 있다. 척추주사요법도 케이스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다. 신경마비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

허리 질환은 평상시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비정상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써서 자주 들거나, 외부에서 가벼운 충격을 자주 받거나, 운동 중 무리한 자세를 취하다가 삐끗한 느낌을 받는 것도 나쁘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척추 주변 근육의 약화 그리고 과도한 비만 등은 그만큼 척추에 부하가 가게 돼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허리 디스크환자에게는 허리 견인치료가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요추 전방 전위증환자는 견인치료는 피해야하고,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근육강화 운동이 중요하다.

열린마당

복지대상자, 공정조사·세심한 관리를

박 효 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주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도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경기 침체로 고용불안, 실직, 폐업 등의 이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당연히 소득이 줄어 들고 가구 내의 소득원이 상실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필요한 급여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 증가, 부양의무자 변동으로 급여가 중지되거나 탈락돼야 할 가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늘어가는 복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취지하에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201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고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등 소득사항, 재산세 납부사항, 금융재산 등 재산사항에 관한 25개 기관 80종의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를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급여, 한부모가족 등 복지대상 가구 8만 9159가구에 대해 4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확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확인 조사과정에서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억울하게 탈락되거나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탈락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탈락, 중지로 인해 위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번 확인조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지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소명자료 제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오등봉공원 조성 샤이 민심 외면 말아야

김 봉 호
제주시 오라2동 주민

최근 오등봉공원 조성사업 관련 환경단체와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소위 비상대책위가 4월29일로 예정된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하는 것을 보고 문득 과거 일부의 반대로 제주유치가 무산됐던 1999년 우주센터, 2003년 쇼핑아울렛이 떠오른다.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을 우주센터는 결국 전남 고흥으로 전환, 유치돼 우주메카로 발돋움해 지역경제에 지대한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 추진됐던 쇼핑아울렛이 무산돼 결국 2017년 사드, 한한령 이전 중국 관광객들이 폭주했지만 변변한 쇼핑시설이 없어 큰손 관광객은 제주에 안 오거나 단지 제주를 수도권 쇼핑관광을 위한 단기 통과지역으로 인식, 당시 제주가 3류 관광지로 전락했지 않느냐는 논란을 생생히 기억한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제주 전통제품은 상품 영역이 다르고 특정지역을 여행하면 그 지역 토속제품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관광객 확대 유인 및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이 모든 것이 반대에만 익숙해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특수 이해관계자 소수의 반대 목소리에 휘둘린 결과다.

오등봉공원은 신·구제주, 노형으로 연결되는 중심지역에 제주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조성 사업이다.

오등봉을 중심으로 한 대상지역은 현재 잡목, 잡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일부 이해 관계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환경보호는 잡목과 잡초 그리고 쓰레기인지 묻고 싶다. 제주시민 어느 누구가 현재의 흉물지역을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반대할 것인가. 단지 머리 아프게 나서서 목소리를 안낼 뿐이다. 제주도민의 행복 추구가 존재 이유인 도의회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새삼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